서산 부석사 관음상

韓 "왜구 약탈" vs 日 " 증거 없어"

약탈 증거 대라는 일본
일본 이운 기록 없어
환지본처가 세계정의
부석사, 반환 간절히 호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1월 24일 제자리 봉안 위한 양국 연구자 토론회 열려



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 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 연구자 토론회' 를 개최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한국은 "왜구의 약탈로 관음상이 일본에 전달됐고 원래인 한국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은 "왜구의 약탈이란 증거는 현재 없다. 절도 사건이니 법률에 따라 장물은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 연구자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일본 측 토론자들은 절도 사건으로 관음상 문제를 접근하며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바른 절차를 논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왜구 약탈에 대한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토론회에서 일본 모리모토 가쓰오 교수(오사카 경제법과 대학)는 "한국은 왜구가 관음상을 약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실 증명은 어렵다"며 "약탈 문화재에 대해 동남 아시아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열린 바가 없어 발생된 문제이다. 모두가 납득할 논의를 거친 후 그 기반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관음상도 반환 혹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노 도모코 기자는 "관음상은 돈을 노린 단순한 절도 사건이다. 형사사건의 관점으로 본다면 범인이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장물은 일단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명한 왜구 약탈품이라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점을 비난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토론자인 김병구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 왜구의 약탈임을 증언하는 자료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약탈된 고려시대 불상 중 제작자가 밝혀진 불상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복장물이 있기 때문이다"며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은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복장에 이운기록이 작성된다. 관음상에는 이운기록이 없다. 정상적인 이운양도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절도 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왜구가 무력으로 빼앗은 강도 사건으로 보겠다"며 "전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관련해 국제 사회 흐름은 원래 장소로 돌려주고 정의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논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문길 소장(한일문화연구소소장)은 "사학자 향토사 연구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 제39호에 보면 왜구가 1375년 9월 서산에 침입했다고 당시 지도를 찾아 발표했다"며 "객관성 있는 자료이며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관음상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더 이상 손상되거나 방치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신도 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고 부석사로 관음상을 돌려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발표에 참여한 안효돈 서산시 의원은 "관음상이 서산시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17만 서산시민이 확신한다. 이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부석사에서 온 한 신도는 "관음상이 부석사 원래 자리로 돌아와 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까지 모든 신도들은 의지를 다해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대마도에서 관음상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2013년 1월 절도범들은 체포되었고 부석사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관음상이며 부석사 소유라 주장하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은 인정됐고 불상은 한국에 남게 됐다. 부석사는 관음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월 승소했다. 현재 정부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네팔 스님 · 불자들도 "사찰음식 좋아요"

문화사업단, 진관사서 이주민 대상 사찰음식 체험



사찰음식 명장 제2호이자 진관사 주지인 계호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을 네팔 스님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네팔 스님과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인 사찰음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1월 25일 서울 진관사서 네팔 이주민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통해 이주민들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네팔 스님도 참여했다.

이날 체험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제2호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의 강연과 무전 · 배추전 · 두부조림 등의 음식 만들기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강연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으면서도 각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니마상예(Nima Sangye) 씨는 "스님께서 직접 사찰음식을 시연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특히 같이 온 친구의 생일에 사찰음식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음식 체험 이후에는 선우 스님(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이 '마음수행' 이라는 주제로 차담을 이어갔다.

행사가 끝난 뒤 네팔의 군상도르제(Kunsang Dorje) 스님은 "평소 사찰음식이 유명한 진관사에 와서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네팔과는 다른 한국 불교문화를 접하고, 진관사 역사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불교사회복지대회

조계종복지재단 12월 6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지는 축제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2018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부로 구성됐다. 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불교사회복지 활동 방향' 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2부 자비나눔 기념대법회에는 국회의장상, 총무원장표창, 장관표창 등 유공자시상식이 진행된다.

김지원 기자

지구 '생태용량' 과소비…"절대량 줄여야"

윤순진 교수, 녹색불교포럼 주제발표서 지적



"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가지려는 것은 욕심' 이란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 몫까지 지구 생태용량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에너지 소비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사진)는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불교환경연대 교육장 그린담마홀서 열린 11차 녹색불교포럼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문제 가운데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집중 조명하고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 연기성' 을 주제로 한 발표서 윤 교수는 "이미 지구 기후가 더워지는 변화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의한 것으로 과학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온실기체 배출원의 68%는 에너지 즉, 화석 연료이므로 기후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에너지 서비스 개념을 통해 '에너지 절약' 과 '에너지 효율 개선' 의 차이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에너지 자체가 아닌,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에너지 절약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고, 효율 개선은 서비스 질은 동일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탄성효과(rebound effect)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높아진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는 정비례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일상 속 절약과 기후친화적인 정치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서는 보완적 차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및 전환 △탄소흡수원인 산림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韓中 스님들, 중국서 불교수행 교류

종단협, 강소성 천녕선사서 제11차 한중수행체험



중국 강소성 천녕선사 예불에 참여한 한국 대표단 스님들. 스님들은 참선수행과 사찰공양 등 중국 사찰생활을 체험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스님들이 중국에서 불교수행을 교류하며 양국의 우호를 다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11월 23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상주시 천녕선사에서 제11차 한중수행체험을 실시했다.

천녕선사는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찰로 중국 동남 제일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종단협에 따르면 100여 명의 스님들이 천녕선사에서 수행중이다.

이번 수행체험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 · 천태종 · 진각종 · 태고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각 종단이 참여했다. 중국 측에서는 천녕선사 방장 곽진 스님, 강소성 불교협회장 신청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 황매 오조사 방장 정자 스님 등이 함께했다.

한국대표단은 이 기간동안 예불과 참선수행, 사찰공양 등 사찰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유적 및 사찰순례, 한중불교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한편 한중수행체험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부속사업으로 한국불교와 중국불교계가 매년 번갈아가며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